

탈북청소년의 국가정체성

김 신 희

북한인권정보센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사회에 이주하여 현재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¹⁾의 수가 2만 6천명이²⁾ 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바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는 매우 다른 특혜이다. 그러나 법적인 국적 취득이 바로 정신적인 국가정체성을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유럽과 북미 등의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한국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탈남'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약 3,7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호주 등을 최종 거주지로 정하고 '탈남'하여 남한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난민신청을 하거나 제3국에서 직접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³⁾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에서 '약한 국가정체성'과 '강한 민족정체성'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⁴⁾ 탈출해 온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현재의 남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긍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고 싶은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북한은 하나도 없었으며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기는 하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닌 '통일 한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33%나 되어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부정이 남한에 대한 강한 긍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가족단위 탈북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규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수는 2천2백여 명이고⁵⁾ 학령기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도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같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의 학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혼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재 정부의 공식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고 하위집단의 경우 '탈북여성', '탈북청소년', '탈북학생'과 같은 형식으로 하위 집단명 앞에 탈북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기로 한다.

2) 2013년 12월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3) 『한겨레신문』, 2010년 9월 12일, 전우택, 유시은, 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2호, 2011, p.2에서 재인용.

4) 전영선, 이병수,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아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2012) pp.105-107.

5) 2013년 4월 현재 교육부 통계자료

업을 중단하는 비율 중에 유학 또는 이민으로 인한 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3%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⁶⁾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탈북청소년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탈북청소년의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착, 즉 국가정체성의 특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 특성의 원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

우리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십대 학생을 지칭하는 말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의 정의는 법령마다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20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인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령기인 6세~24세까지의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⁷⁾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경제적 곤란과 탈북과정 및 남한 입국과정에서 장기간의 학업공백으로 인해 한국의 정상적인 학령보다 대체로 1~2살 높은 연령인 경우가 많고 특히 대안학교 학생들은 청년으로 부를 만한 높은 연령의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나이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남한의 정규 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탈북청소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탈북청소년 모집단, 전국의 정규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중 설문조사에 응한 287명이 연구 대상이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16명으로 40.4%이고 여학생은 171명으로 59.6%이다. 연령 분포는 12~14세가 66명으로 23.0%, 15~17세가 87명으로 30.3%, 18~20세가 105명으로 36.6%, 21~25세가 27명으로 9.0%이고 무응답이 2명이다. 학교급 및 유형별 분포를 보면 중학생이 116명, 40.4%로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85명, 29.6%이며, 대안학교가 86명, 30%이다.

나. 연구방법

탈북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⁸⁾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한 2009년 국제시민성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⁹⁾에서 전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성을 조사한 설문지

6) 2012년 4월 현재 교육부 통계자료

7)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이른바 “보호대상자”는 부모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고 북한에서 출생한 경우이다. 통일부에서는 이들을 “비보호대상자”라고 하며,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중국 출생이다. 이들은 출생지와 부모 국적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이들도 탈북청소년 범주에 포함시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8) 이 설문지 문항 및 조사통계 결과는 김신희,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에서 구성하여 사용한 설문지와 조사 통계결과의 일부분을 발췌하였다.

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¹⁰⁾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표본집단 추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에 발표한 탈북학생의 재학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전국의 학교 가운데 중학교 44개교 176명, 고등학교 83개교 147명, 대안학교 3개교, 총130개 학교에 재학 중인 433명의 탈북청소년에게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303부이고 이중 287부가 유효 집계되어 통계 처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구나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별 시민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II. 탈북청소년의 증가와 다문화적 현상

이 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급속한 증가현상과 이들의 존재적 특성이 북한출생의 탈북청소년에서 중국출생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존재적 특성의 변화가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논의한다.

1. 탈북청소년의 현황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6~20세의 학령기에 있는 입국자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들 중 학교에 취학한 수도 매년 증가하여 교육부에 의한 탈북학생 집계가 최초로 시작된 2007년에 비해 2013년 현재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 시설에서 수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총 2,254명이다.

가. 정규 초·중등학교 재학 현황

정규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은 전국의 700여개 2,022명이다. 정규학교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 정원은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120명이다. 학교 급별 탈북청소년의 재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9)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10)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표1> 학교 급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중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3. 4)	600	559	229	249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출처 : 교육부('13.4)

나. 대안학교 재학현황

현재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총8개인데 이중 1개만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 대안학교이고 나머지 7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력인정과 대학입학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취학중인 탈북청소년 2,254명 가운데 10.3%인 232명이 대안학교에서 재학 중이다. 그러나 정규학교로 분류된 한겨레중·고등학교도 사실상 탈북청소년만이 재학하는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정원 200명을 포함하면 대안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약 19%로 더 높게 나타난다.

<표2>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시설 현황

(단위 : 명)

번호	학교명	소재지	전담교사	학생 수
1	두리하나국제학교	서울 서초구	6	24
2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구	4	21
3	여명학교(인가 대안학교)	서울 중구	16	57
4	사단법인 여명	서울 중구	17	18
5	하늘꿈학교	서울 송파구	9	55
6	드림학교	충남 천안	9	23
7	한꿈 학교	경기 의정부	9	30
8	한울 학교	경기 남양주	6	19
합 계			45	232

*출처 : 국회의원 심윤조의원실,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2013 국정감사 종합 정책자료집

탈북청소년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재학 중인 곳은 서울이고 그 다음이 경기도와 인천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70%가 수도권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2012년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학교의 경우 탈북청소년이 10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밀집학교')는 24개교뿐이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한다. 탈북청소년 재학학교의 60.4%인 425개의 학교가 1명만 재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계는 전국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대부분이 그 학교에서 혼자 북한출신인 그야말로 극소수에 해당하는 출신지 배경을 가진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2. 탈북청소년의 다문화적 특성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80년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외국인노동자와 재중동포 및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¹¹⁾이 140만 명을 넘었고 그 자녀수는 17만 명에 가깝다. 이는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5천73만여 명의 2.8%에 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와 같은 규모이다. 이들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에 밀집해 있지만,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도 42개나 되는 등 전국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¹²⁾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 외국인과 결혼하여 형성된 국제결혼가정도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¹³⁾이라고 불리는 국제결혼가정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학생¹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전체 학생 수는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였으나, 다문화학생은 6천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55,780명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4년에는 7만 명에 달하여 전체학생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전체의 7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문화학생의 증가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 증가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6%에 달한다.¹⁵⁾ 탈북여성의 대부분은 2~30대 연령대인데 이들은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조선족 또는 한족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대부분은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온다.

이렇게 한국에 온 아이의 경우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아버지는 중국 국적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 아버지는 입국하지 않고 만약 한국에 함께 왔다고 해도 이혼하여 북한이탈주민인 엄마하고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 북한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북한적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혜택이 더 많고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대체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출생 국가별 분포를 보면 탈북청소년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존재적으로 다문화학생과 중보되는 현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출생국가가 중국으로

11)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국적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포함

12) 2012년 8월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연합뉴스 2012.8.9. 인터넷판

13)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의식적 준비가 부족했던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외국인,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과 그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14)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다문화학생이라고 부르는 교육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남성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남자와 결혼한 어머니의 재혼가정에 동거하기 위해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15) 2013년 12월 현재 통일부홈페이지 통계자료

나타난다. 정규고등학교에는 1명밖에 없지만 중학교에도 약 23.4%의 학생이 중국출생이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51.8%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중국출생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정규학교 탈북청소년의 출생국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재학생수(명)			합계(명)
	초	중	고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중국 등 제3국 출생	624	83	1	708
계	1,204	351	437	1,99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12.4)

이들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은 한국말을 구사하지 못하고 중국어만 할 줄 아는 경우가 많고¹⁶⁾ 국가정체성이 있어서도 아버지의 나라이자 자신이 태어난 중국을 자신의 출신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에서 어머니가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북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⁷⁾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자신들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왔다. “탈북청소년을 다문화로 분류하다니”¹⁸⁾라고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다문화사회의 흐름 속에 탈북청소년을 다문화의 범주 포함시키는 것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을 같은 민족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저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같이 대우하는 것을 부당하며 탈북청소년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존재”고 “통일을 이루고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르다”고 특수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은 미리 통일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미래’이며 탈북청소년은 통일의 역꾼이고 통일된 이후 북한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미래의 일꾼이라는 민족적 사명을 부여하여 탈북가정을 다른 다문화가정과는 구별하여 민족통일을 함께 도모해야하는 중심으로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정부 특히 통일부의 논리이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기도 하며 우리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남한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이 이미 초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절반이상이 중국출생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다. 자신의 존재적 특성에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이 중복되어있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이 초등학교생인 이들이 진학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국가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도 기존의 탈북청소년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존재

16) 이향규 외,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pp.154-155

17) 위의책, p.161

18) 내일신문, “탈북청소년을 다문화로 분류하다니,” 2011.4.7 인터넷판

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민족정체성 및 국가정체성의 변화는 이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연구와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Ⅲ. 탈북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의 특성

1. 탈북청소년의 약한 국가정체성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은 오늘날 민주적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이다. 자기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있고 애착이 있어야 그 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 및 사회적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촌화 현상의 확산으로 노동력의 이동 즉, 이민이 비교적 자유로워져서 많은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화 현상이 일반화 되어가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민족이나 인종에 기반한 국가정체성이나 충성심과 애국심을 지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구촌 사회가 되어가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성 자질을 함양하고자하는 세계 각국의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국가의 동질성에 기반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을 시민성 요소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정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리를 지향하고 실현하고자하는 국가의 이상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며 정체성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측정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탈북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8가지의 하위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국가에 대한 애착을 통해 국가 정체성 즉 국가에 대한 자신의 소속감 및 일체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탈북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태극기의 소중함은 80.5%, 한국정체 체계가 잘 되어 있음 72.5% , 한국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함 84.0, 한국의 발전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 89.2%, 한국에 사는 것의 자부심 83.3% 한국이 환경을 보호하는 나라다 73.5%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84%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편, 탈북청소년은 전반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인데도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응답이 37%로 나타나서 3명중 1명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탈북청소년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국가에 대한 인식

(명,%)

귀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아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1) 태극기는 나에게 소중하다.	6 (2.1)	50 (17.4)	156 (54.4)	75 (26.1)	287	3.05	0.720
2) 한국의 정치 체제는 잘 되어 있다.	15 (5.2)	64 (22.3)	161 (56.1)	47 (16.4)	287	2.84	0.756
3) 나는 한국을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4 (1.4)	42 (14.6)	159 (55.4)	82 (28.6)	287	3.11	0.691
4)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4 (1.4)	26 (9.1)	153 (53.3)	103 (35.9)	286	3.24	0.671
5) 나는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44 (15.3)	137 (47.7)	80 (27.9)	26 (9.1)	287	2.69	0.838
6)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1 (0.3)	46 (16.0)	173 (60.3)	66 (23.0)	286	3.06	0.635
7) 우리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15 (5.2)	60 (20.9)	146 (50.9)	65 (22.6)	286	2.91	0.801
8)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이다.	6 (2.1)	39 (13.6)	178 (62.0)	63 (22.0)	286	3.04	0.664

탈북청소년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3명중 1명 이상이 되는 비율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싶어한다는 것은 남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한에 충분한 소속감과 정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실제로 탈북청소년은 남북분단 상황을 다룬 영화를 본다는가 남한과 북한 국가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보는 등의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가끔 자신이 '남한사람인가, 북한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¹⁹⁾

이러한 결과는 성인인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2만6천명이나 되는 북한이탈주민 중 다시 유럽과 북미 등의 제3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한국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탈남'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²⁰⁾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에서 '약한 국가정체성'과 '강한 민족정체성'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²¹⁾ 탈출해 온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현재의 남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긍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북한은 하나도 없었고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기는 하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닌 '통일 한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33%나 되어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부정이 바로 남한에 대한 강한 긍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19) 정진곤, "북한이탈학생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Vol.4 No.1 (2011), p. 94..

20)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1) 전영선, 이병수,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아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2012) pp.105-107.

2. 탈북청소년의 약한 국가정체성의 원인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탈남하여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나 유럽의 국가로 이주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남과 북의 사고방식과 언어 차이에서 발생하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이중적 태도와 경제적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 탈북자의 삶을 지지해줄 인적·물적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탈북자의 정체성 혼란, 글로벌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급격한 수용과 민족주의적 가치관의 쇠퇴로 인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탈남의 배경과 동기를 제공하고, 탈북자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이 결합되어 탈남 현상이 발생한다.²²⁾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 형성된 국가 정체성이 중국과 한국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탈북대학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³⁾ 이러한 남한사람들의 차별과 배제는 탈북대학생이 남한에 대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자신을 구별하고 같은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주민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사회와 국가에 통합되지 못하고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청소년의 3명중 1명이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가 다양함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의식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수용의식이 낮아서 다문화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은 학교사회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고 있다. 실제 탈북청소년을 심층 면접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은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보다 한국에 입국하여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에는 다양한 민족구성원이 없고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탈북청소년의 존재를 매우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탈북청소년은 중국에서보다 한국에 정착한 후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사회가 이들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나 북한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지목함으로써 사회적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들을 복지지원의 수혜대상으로 지목하여 두드러지게 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국가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왕따'당하는 경험을 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탈북'하여 중국으로 국경을 넘은 것처럼 '탈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받아주는 선진국으로 다시 한번 국경을 넘고 국적을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는 한계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에게 차별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22)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194-238.

23)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p.190.

24) 이항규 외, 『탈북청소년 교육의 중단연구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pp.159-161.

다른 인종과 민족에게 당하는 차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탈남'을 감행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남한에서처럼 유일하게 두드러지는 소수집단이 아니고 다양한 이주민 중의 하나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처럼 지목받는 유일한 북한이탈주민 'only one'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one of them'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소수민족 전체가 어느 정도 차별받는 상황에서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차별받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유학가고 싶고 이민가고 싶은 적극적인 성취 욕구가 실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인 발전과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을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4%, 한국의 경제발전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응답도 89%나 되는데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37%나 나온 것은 한국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영어도 배우고 발전된 선진국에서 공부 많이 하여 성공하고 싶다는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성취 욕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취적인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는 외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고 탈북하여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조선족 재중동포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대한 정부의 보장을 듣고 한국에 온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보면 외래어가 난무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학생들도 모두 영어연수와 캠프 등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으로 방학때마다 다녀오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접한 탈북청소년과 성인 탈북자들도 외국에 나가서 영어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한국화' 된 적응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사회는 매우 국제적인 관계가 활발하고 수많은 나라와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연결망이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연결망을 북한이탈주민들도 충분히 활용하여 캐나다, 미국, 영국으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폭압적 인권 상황과 탈북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충분히 활용하여 '탈북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이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유학을 떠난 한 탈북대학생의 경우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고 떠났다고 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한 탈북대학생은 "꿈이 참 거대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랭귀지 스쿨에서 6개월 하고 SAT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서 결정해 보려고 해요. 다행인 것은 뭘 하든 영어와 함께니까 시간낭비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²⁵⁾라고 했다.

탈북대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영어문제이다. 물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도 가장 마지막까지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이다. 영어를 못해서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로 된 외래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탈북청소년이 영어로 받는 스트레스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은 반작용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로 유학 또는 전가족 이민을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부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고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탈북청소년이 한국을 떠나 다른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지 한국

25) 한상미, "한국 탈북 청소년 37%, 해외 거주 희망," 미국의 소리, 2013.2.7.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599080.html>

이 싫거나 살기 어려워서는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은 성취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5>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8년 (07.3~08.2)	2009년 (08.3~09.2)	2010년 (09.3~10.2)	2011년 (10.3~11.2)	2012년 (11.3~12.2)	2012년 비율
학교부적응 (기초학력부족, 고연령 등)	21	20	24	8	5	9%
장기결석 등				9	13	23%
가정사정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10	9	9	16		
진로변경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14	14	6	6	12	21%
건강	3	2	3	6		
취업				1		
이민 등 출국	-	-	-	12	24	43%
행방불명	-	-	-	4	2	4%
기타	26	14	14	1		
미기입				4		
계	74	59	42	67	56	100%

* 교육과학기술부(12.4 기준)

셋째, 남한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탈북청소년에게 투사되는 현상 때문이다. 탈북청소년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일어날 때 학교에서 북한을 대신하는 분노의 분출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잘 어울리다가도 북한이 한국에 공격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뉴스를 본 남한청소년이 탈북청소년을 같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북한 사람' 또는 '북한 정권과 동일시'하여 "너네는 왜 그러니?" 하는 식으로 탈북청소년을 가해자인 북한정권과 동일한 입장에 놓고 피해자인 한국사람과 '구별 짓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심지어 남한의 성인들도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하고 있는 차별 현상으로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차별받고 '왕따'당하는 경우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복지혜택이 좋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받아주는 제3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탈북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약한 것은 그들의 출신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 탈북 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을 따라서 탈북했다'는 답변이 72.4%로 가장 높다. 그 다음 순위가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이 24.2%를 차지하였다. 이는 탈북이 자신의 동기로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모와 가족의 결정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채 고향을 떠나 친구도 하나 없는 낯선 한국사회와 학교로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된 탈북청소년의 입장이 잘 나타난

응답결과라고 생각된다.²⁶⁾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북한사회에서 겪게 된 어떤 문제로 인해 자신의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로 탈북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도 어린나이에 살았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저 친구들과 즐겁게 놀며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고 그리운 친구가 있는 곳으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낮은 한국사회와 경쟁이 심하고 개인주의적인 한국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호감보다는 어린 시절을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추억이 대부분인 대학 입시를 위한 선택도 경쟁도 없이 느슨한 북한학교와 북한에 대한 그리움과 소속감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북한의 고향에 대한 긍정적 추억은 남한사회와 학교에 대한 부정적 적응상황과 결합하게 되면 한국사회와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개인이 가지는 자기정체성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국가정체성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오늘날 특히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고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 대한 국가정체성 형성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이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탈북청소년이 남한에 살면서 어떤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이들의 현재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고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통계에서 보듯이 이미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절반이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이 중복되어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 및 출신국가 배경의 새로운 구성원이 늘어나고 한 가정 내의 구성원들의 배경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국가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존재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민족정체성 및 국가정체성의 변화에도 주목하여 사회통합 정책과 교육적 지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국가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여 획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각 또는 민족과 출신 국가의 배경에 따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을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서로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탈북 청소년에 관련된 통계 자료, 조사는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194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총 739명을 방문 면접한 결과, 복수응답 허용 항목.

< 참고문헌 >

- 김신희,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향규 외,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정진곤, “북한이탈학생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Vol.4 No.1 (2011)
- 전영선, 이병수,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2012)
- 전우택, 유시은, 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2호, (2011)
-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기타자료>

교육부 통계자료

내일신문, “탈북청소년을 다문화로 분류하다니,” 2011.4.7 인터넷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탈북 청소년에 관련된 통계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한상미, “한국 탈북 청소년 37%, 해외 거주 희망,” 미국의 소리, 2013.2.7.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599080.html>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연합뉴스 2012.8.9. 인터넷판